"眞正見解, 초심자에 가장 중요"



지안 스님의 임제록 강설

① 어록의 왕 '임제록'

〈임제록〉은 '어록의 왕'이라고 불려진다. 선사들의 어록 가운데 가장 유명한 어록이다. 일찍이 일본의 철학자 니시따 끼따로가 "이 세상의 모든 책이 불타 없어져도 임제록만 남아 있으면 된다"고 말하기도 했다.

〈임제록〉의 구성은 먼저 마방(馬防)이 지은 서문이 있고 이어 상당(上堂), 시중(示衆), 감변(勘辨), 행록(行錄), 탑기(塔記)로 이루어져 있다. 서문에는 임제의 독특한 선풍에 대한 언급이 있다.

"일찍이 황벽의 아픈 방망이를 맞고 비로소 대우의 옆구리를 쥐어박았다. 잔소리쟁이 대우는 임제를 '오줌싸개'라 하였고 황벽은 '이 미친놈이 호랑이 수염을 잡아당긴다' 하였다.

깊은 산 바위 골짜기에 소나무를 심어 뒷사람들을 표방(標榜)하였고 괭이로 땅을 파서 황벽과 수좌를 생매장할 뻔했다.

상당에는 당시의 지방장관 왕상시가 관료들과 함께 스님께 법상에 올라가 법문해 주실 것을 청하여 스님이 법문을 하는 내용이 서술되어 있다.

법상에 올라간 임제 스님이 부득이 해서 법상에 올라왔다고 하면서 만약 종문(宗門)의 입장에서 일대사(一大事)를 거론한다면 입을 열수가 없는 것이라 한다. 발붙일 곳이 없는 것이 일대사의 근본 자리라 하였다.

어떤 스님이 임제 스님에게 물었다.

"불법의 대의가 무엇입니까?"

임제 스님이 "할(喝)" 했다.

그러자 그 스님이 절을 하였다. 임제 스님이 말하기를 이 스님과는 법을 말할만하다 하였다. 임제 스님의 가풍은 '할'이다. 할은 임제의 선법을 거량하는 상징적 수단이라 할 수 있다. 임제 스님이 어느 날 하북부(河北府)에 갔다가 왕상시의 청에 의해 법좌에 올랐다.

그때 마곡(麻谷)이라는 스님이 나와 물었다.

"대비보살의 천수천안 가운데 어느 것이 바른 눈(正眼)입니까?"

그러자 임제 스님이 되물었다.

"대비보살의 천 개의 눈 가운데 어느 것이 바른 눈인가? 빨리 말하라."

이에 마곡 스님이 임제 스님을 법좌에서 끌어내리고 마곡 스님이 대신 법좌에 올라앉았다. 임제 스님은 마곡 스님 앞으로 가까이 가서 "안녕하십니까?" 하니 마곡 스님이 잠시 머뭇거렸다. 임제 스님이 마곡 스님을 다시 끌어내리고 법상에 앉았다. 마곡 스님이 밖으로 나가버리자 임제 스님도 법상에서 내려왔다.

〈임제록〉의 가중 중요한 내용이라 할 수 있는 무위진인(無位眞人)을 말하는 대목도 있다.

"붉은 살덩이로 된 몸뚱이에 지위가 없는 참사람이 하나 있다. 항상 여러분들의 얼굴에 드나들고 있다. 증거를 잡지 못한 사람들은 잘 살펴보시오."

그때 한 스님이 나와서 물었다.

"어떤 것이 지위가 없는 참사람입니까?"

임제 스님이 법상에서 내려와 그의 멱살을 꽉 움켜잡고 "어서 말해 봐 어떤 것이 지위 없는 참사람이야?"

그 스님이 머뭇거리자 임제 스님은 그를 밀쳐버리며 말했다.

"지위 없는 참 사람이 이 무슨 똥 막대기인가?" 하고는 방장실로 들어가 버렸다. 시중(示衆)은 평범하게 대중에게 훈시한 법문들이다. 임제 스님이 특별히 강조하는 말씀이 나온다.

"요즈음 불교를 배우는 사람들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참되고 바른 견해(眞正見解)를 구하는 일이다. 만약 참되고 바른 견해만 얻는다면 생사에 물들지 않고 가고 머무름에 자유로울 수가 있어 뛰어난 것을 구하지 아니하여도 뛰어난 것이 저절로 온다."

또 부처가 누구인가 일러주는 말이 있다.

"그대들이 부처를 알고자 하는가? 바로 내 앞에서 법문을 듣고 있는 그 사람이다."

〈임제록〉에 나오는 구절 가운데 많이 인용되는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다.

"사대(四大)는 법을 설할 줄도 들을 줄도 모른다. 허공도 법을 설할 줄도 들을 줄도 모른다. 그런데 눈앞에 모양이 없는 밝고 신령스러운 것이 능히 법을 설할 줄 알고, 들을 줄 안다."

〈조계종 고시원장〉

한 티끌도 바로 보면 깨달음



세상 속 경전읽기

① 선화륜(旋火輪)

어렸을 때 틈만 나면 충남 아산 노로지[장곳리]에 있는 외가에 내려가곤 했다. 정월 대보름이나 첫 쥐날[上子日] 밤에는 벼를 베어낸 그루터기들이 줄지어 서있는 논바닥이 놀이터가 되었다. 마른 짚단을 묶은 홰에 불을 붙여 들고 다니며 논두렁을 태우는 쥐불을 놓기도 하고, 줄을 맨 깡통 안에 관솔불을 담아 깡통을 돌리면 불바퀴인 선화륜(旋火輪)이 생긴다. 여러 아이들이 만들어내는 선화륜은 가히 장관을 이룬다. 눈을 감아도 잔상이 남아 선화륜이 보인다.

논 밖에 없는 평야지대라서, 오리나 십리쯤 떨어진 이웃마을의 쥐불과 선화륜들도 지척인 듯 선명하게 잘 보여 온 들판이 불꽃놀이장이었다. 지금 같은 가상현실 게임의 시대에는 잘 볼 수 없는 장면들이었다. 〈능엄경〉에 선화륜의 이야기가 나온다.

"아난아! 네가 말한 바와 같이 사대(四大)의 화합으로 세간의 갖가지 변화를 만들어낸다. 이난아! 만약 그 (사대의) 성품과 바탕이 화합되는 것이 아니라면, 사대가 서로 화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마치 허공이 물건들과 화합할 수 없는 것과 같다. 만약 (사대가) 화합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변화하는 것과 같아서 시종 서로 변화되어 생멸이 상속된다. 태어났다가 죽고, 죽었다가 다시 태어나는 등, 거듭되는 생사가 마치 선화륜(旋火輪 - 횃불 등을 돌릴 때 생기는 불바퀴)과 같아서 쉴 틈이 없다. 아난아! 그것은 마치 물이 얼음으로 변하고, 다시 얼음이 물로 변하는 것과 같다."

〈楞嚴經卷第三 T0945_.19.0117b24-b29〉

사대가 화학적으로 영구히 결합하는 것이 아니고, 일시적으로 모이면 태어났다고 하고, 흩어지면 죽었다고 한다. 지수화풍(地水火風) 각각의 성품인 견습난동(堅濕暖動 · 단단함, 젖음, 따뜻함, 움직임)은 사대가 모이고 흩어지는 데 관계없이 없어지지 않고 사대의 바탕을 이룬다.

불깡통이 불바퀴 원둘레 360도 모두에 동시에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불바퀴를 시계에 비유한다면 불깡통이 12시 위치에 있다가, 3시 위치에 있다가, 6시 위치에 있다가 9시 위치에 있는 등, 불깡통의 위치가 계속 변한다. 순간순간을 정확히 볼 수 있는 눈이 있다면, 매 순간 불깡통은 불바퀴로 보이는 원둘레 상의 어느 한 점에 있을 뿐이다. 따라서 불바퀴는 실재가 아니고 잔상효과(殘像效果)에 의한 착시현상(錯視現象)일 뿐이다.

이 잔상효과 자체는 좋을 것도 나쁠 것도 없다. 달리는 말을 사진 찍으면, 사진 속의 말은 멈추어 있다. 그러나 연속사진을 찍어 1초에 24장을 돌리면 말이 달리는 것으로 보인다. 활동사진은 이 잔상효과를 이용한 것이다. 활자문명이 영상문명으로 바뀌면서 잔상효과는 더욱 중요해졌다.

〈관무량수경〉에 나오는 십육관법(十六觀法)의 첫 번째인 초관(初觀)은 일상관(日想觀)이다. 극락세계를 관(觀)하기 전에 관법(觀法)을 확립시키기 위한 관(觀) 연습인 셈이다. 서쪽을 향해 단정히 앉아서 마음을 굳게 간직하고 오로지 해 생각에만 전념한다. 지려는 해가 서쪽에 매달린 북과 같음을 본다. 그래서 눈을 감거나 뜨거나 그 해의 영상이 명료하게 보이도록 한다. 이 역시 잔상효과를 이용한 것이다. 지는 해를 보도록 한 것은 해가 크게 보일 뿐 아니라, 눈을 상할 염려가 적기 때문이다.

생사가 되풀이되는 윤회도 선화륜과 같아서 윤회가 실재하는 것이 아니고, 중생의 전도(顚倒)된 착각에 따른 망상(妄想)일 뿐이다. 청화 스님의 은사이신 금타(金陀) 대화상께서 말씀하셨다. "한 티끌을 잘못 보면 망녕된 생각이 되고, 바로 보면 참깨달음이 된다. [일미(一微)를 오견(誤見)하면 망상(妄想)이 되고, 정견(正見)하면 진각(眞覺)이 된다.]

〈金剛心論 제4편 宇宙의 本質과 形量 序文 중에서〉

〈배광식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명예교수〉



신해행증으로 본 백문백답

㊼ 이해의 길 27

불성과 여래장, 불교 휴머니즘

'불성, 여래장사상은 불교가 아니다.' 이는 1990년대 일본에서 시작된 '비판불교'의 시각이다. 이들은 대승불교의 불성과 여래장은 붓다가 강조한 연기, 무아의 가르침에 위배되기 때문에 불교가 아니라는 주장을 하였다. 붓다는 존재하는 모든 것은 실체가 없다고 했는데, 불성과 여래장은 힌두교의 아트만(Atman)처럼 불변하는 실체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불성, 여래장을 불변하는 실체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런 점에서 비판불교의 대승불교 비판이 이해되는 측면이 있다. 그러나 정말로 불성, 여래장을 아트만처럼 이해하는 것이 타당한 것일까?

공사상이 대승초기에 유행했다면 불성, 여래장은 대승중기 대략 300~650년 사이에 발달한 사상이다. 모든 생명은 붓다(佛)가 될 수 있는 가능성(性)을 갖추고 있다는 것이 불성사상이며, 일체가 여래(如來)의 씨알(藏)이라는 것이 여래장사상이다. 용어는 다르지만, 비슷한 의미와 맥락을 지닌 사상이라고 할 수 있다. 한마디로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붓다의 성품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를 잘 가꾸어 실현하면 깨친 붓다가 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공사상이 '~이 아니다.'라는 부정의 방법을 통해서 존재의 실상을 드러냈다면, 불성사상은 이를 매우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공사상은 모든 것은 관계 속에서 존재한다는 연기의 대승적 해석이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공사상은 현상적인 모든 것을 부정하는 사상으로 오해받기 시작하였다. 이렇게 되면 인연이 만들어내는 현실세계를 모두 부정하는 염세적이고 허무적인 사상으로 흐를 수 있다. 이를 바로잡기 위해 보다 적극적인 사상이 필요했는데, 불성과 여래장이 보완 역할을 한 셈이다. 우리에게 익숙한 〈여래장경〉과 〈열반경〉, 〈승만경〉 등은 이러한 요청으로 역사에 등장한 경전이다.

불성, 여래장을 영원불변하는 실체로 해석하는 것에 동의하기 어렵다. 비판불교의 지적처럼 이렇게 되면 무아의 가르침을 거스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를 그렇게 비좁게 해석할 필요는 없다. 불성사상은 인간의 존엄성을 외치고 있는 불교의 휴머니즘(humanism)이다. 인간은 피부나 성별, 신분에 관계없이 모두가 존엄한 존재다. 왜냐하면 모두가 붓다의 성품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열반경〉에서는 이를 '일체의 중생이 모두 불성을 지니고 있다(一切衆生 悉有佛性)'는 입장으로 정리하고 있다.

인간의 존엄성을 여실히 보여주는 예로 〈법화경〉에 등장하는 상불경(常不輕) 보살을 들 수 있다. 이 보살은 글자 그대로 모든 사람을 '언제나(常) 가볍게 여기지 않는(不輕)' 인물이다. 그는 사람을 만날 때마다 "당신은 거룩하십니다"고 말했다고 한다. 어떤 이들은 자신을 놀린다고 생각해서 상불경 보살을 때리기도 했지만, 그는 진심을 다해 모든 사람을 붓다처럼 예경했다고 한다. 이유는 간단하다. 모든 사람은 붓다의 DNA, 즉 불성을 지닌 존엄한 존재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신분이 천하다고 해서 함부로 하거나 해치는 일은 다름 아닌 불성 모독죄에 해당된다. 이처럼 모든 인간은 어떠한 차별도 없이 존중받아야 한다는 휴머니즘을 영원불변하는 아트만이나 영혼, 윤회하는 주체로 해석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불성, 여래장 사상이 비록 대승 중기에 등장했지만, 그 바탕은 붓다의 가르침에 뿌리를 두고 있다. 본래 마음이 청정하다는 자성청정심(自性淸淨心)이나 붓다의 마지막 유훈인 자신을 등불로 삼으라(自燈明)는 가르침이 대승에 이르러 불성으로 새롭게 해석되고 있는 것이다. '하늘 위, 하늘 아래 나 홀로 높다.'는 붓다의 탄생게 역시 모든 인간은 존엄하다는 선언 이외에 다른 것이 아니다. 그 존엄한 불성을 실현시키는 것이 붓다의 아들(佛子)로서 해야 할 일이다.

오늘날 우리는 자본이 주인인 세계, 태어나면서부터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로 결정되는 헬(hell)조선의 사회에 살고 있다. 불성, 여래장은 이를 부정하고 모두가 본래부터 금수저임을 밝히고 있는 사상이다. 이것이 곧 헤븐(heaven)조선을 지향하는 참다운 인본주의다.

〈이일야 전북불교대학 학장〉

종정예하 주석도량
해운대 해운정사
주 지 능 혜
사부대중일동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동2로 40-6 (해운정사) 전 화 051) 746-2256 / 744-4812 홈페이지 www.seon.or.kr

39년 전통 전국 최초 최고 명품교육
부산불교교육대학
불자 양성 교육 포교 의
새 지평을 열다
2020학년도 입학식 : 3월 5일(목) 오후7시
강의시간 : 각 과별 매주 1회 오후7시~9시
기초교리학과 (6개월, 월) 주간반(수. 오후2시~4시)
불 교 학 과 (1년, 목) 대 학 원 (2년, 화)
불교문화학과 (6개월, 수) 불교문화포교사 (민간자격등록 제2018-000374호)
문 화 강 좌 (수화 월, 합창 월, 다도 월, 대금 목, 사물놀이 금)
대한불교조계종 삼보문화회
부산불교교육대학 학장 평천 범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가야대로 749-1 신동아빌딩 5층(서면 롯데백화점 맞은편) Tel. 051-711-0700